

2016.8.19.

공무국외연수심사회의록

(제 11호)

간 사	위 원 장

※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6조에 의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연수심사회의록

안 건	1. 공무국외연수계획안 1		
회 의 일 시	2016. 8. 19.(금)10:30 제2회의실		
심 의 위 원 (7 명)	참 석 (6명)		비고
	위 원 장 이명원		
	위 원 서정학 김정욱 홍순현		
	이은경 김재선 문정란		
	간 사 이재온		
	사무직원 김성민		
	속 기 사 김혜미		
의 결 결 과	원안가결		

1. 공무국외연수계획안

○의정팀장 이재온 (10시 42분 회의시작)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이재온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뵈고, 올해 다시 뵈게 되었는데, 올해 국외연수는 작년과 달리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코스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공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지사의 협찬을 받아서 연수일정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장께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재온

회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목적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관광특구 해운대구에 걸맞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 모색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이탈리아와 수교 130주년을 맞이한 프랑스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연수목적을 위해 구청 관계부서 직원을 포함하고, 관광공사 부산지사와도 협력하여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동기 및 배경입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천년 이상의 역사도시로서 관광 인프라가 발전한 곳으로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접목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도시로 유명한 도시들의 관광지 관리방안, 관광객을 위한 편의와 안전시설, 안전대책 등을 비교, 분석, 검토하고, 지방자치 및 의회의 뿌리가 깊은 도시인만큼 운영 사항과 해운대구의회에 도움이 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관광 및 홍보정책을 수집하고, 해운대구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운대구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관광특구 해운대에 걸맞은 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국가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연수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 9일이 되겠습니다.

연수 참여자는 의원 17명, 수행직원 3명, 구청 관계직원 2명으로 대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연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로마 시청사 및 시 의회 등 10개소를 방문하고, 특히 파리 및 피렌체 관광청을 방문하여 이번 연수목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파리 지역은 세느강을 중심으로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유럽 3대 야경 중 하나인 파리 야경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해운대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위스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션거리인 두모오 광장에서 스칼라 극장 앞 200m를 견학하면서 구남로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고, 더 몰 아웃렛을 방문하여 해운대구 대형백화점 및 아웃렛 매장과 관리방법 및 운영방향 비교, 검토와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방문하는 각 도시별 교통시설과 도시환경 관리방안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실태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도시 운영실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해운대구에 접목할 만한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역할 및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수자들에게는 크게 3개의 정책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활성화 분야로 타 도시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과 우리 구의회 접목 검토를 하겠으며, 정성철 의장, 이명원 부의장, 서정학 의회운영위원장, 서창우 의원, 윤정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 분야로 대중교통, 야경 관리방안, 도시환경 관리, 안전대책 등 생활에 밀접한 현황 및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겠으며,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의위원장, 황병두 의원, 손유정 의원, 이문환 의원, 최영곤 의원, 유점자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광 및 홍보 정책과 타 분야와의 연계 분야로 관광 인프라 자원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 및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구하겠으며, 나머지 분들께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를 분담하여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연수기간 중에는 매일 일과 후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수일지를 기록하고, 일지 위주로 소감 발표와 토론회 개최 등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수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 규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산출했으며, 환율은 7월 28일 자 기준으로 1달러 당 1,127원입니다.

경비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부족예산은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연수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공국외연수 규칙」 제9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2번 연수단 구성을 보시면 구청 직원 두 사람이 저희들과 연수를 같이 갑니다.

지금까지 의회 의원들만 가다보니까 집행부하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약간의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청 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구청 직원 두 사람도 같이 따라 간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선 위원님.

○김재선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주 큰 용기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태껏 동남아만 돌았지,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구가 시끄럽고 그럴 때는 조심스러웠을 텐데, 이번과 같이 그런 일이 없을 때 의원님들의 식견을 들어보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짰 것도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는 가이드여행보다는 개인으로 갈 수 있는 워킹 여행같이 짜셨네요.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한국관광공사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만 먼 거리를 가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의 살림을 사실 분들이 다 가시니까 저는 구민으로서 우려가 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놓고 가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일이에요. 10일이면 짧은 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큰마음으로 진짜 용기를 내셔서 하신 것을, 또 프로그램도 좋고, 또 자비를 많이 들어서 간다면 다들 생각하는 뜻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좋은 뜻의 표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 공무국외연수 심의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동남아를 좀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럽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선 위원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헌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이명원

예.

○홍순헌 위원

팀장님, 자료를 예년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만드셔서...

○의정팀장 이재은

예.

○홍순헌 위원

과연 심의 자료인지 아니면 내부 회의 자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편하게 하시려고 한 것은 맞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선진지라든지 후진국이지만 문화탐방을 통해서 해운대구민을 위해 뭔가 남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의정팀장 이재온

예, 맞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주변의 언론이라든지 또는 CEO,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의정팀장 이재온

예.

○홍순헌 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보고서를...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팀장님의 말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자료로 남겨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정팀장 이재온

알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두 번째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정말로 대성과라고 하면 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수일정상에서 예년하고 달리 해 놓은 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 방문이라든지 의정활동 관련 이런 사항들은 별개로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팀장 이재온

예, 알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관광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의회도 둘러보고, 관리사무소도 한번 둘러보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의정활동의 행정적 요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의정팀장 이재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하기 전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현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팀장님이 강조하시는 ‘관광특구’ 이 부분도 차별성을 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코스는 해운대구민 중에 상당수가 다녀왔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의정팀장 이재온

예.

○홍순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관광특구 기능으로써 우리 해운대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관광특구를 강조하면 보고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특구 이전에 우리보다도 100년 이전의 관광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0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의회 차원에서 보고 와서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 100년의 해운대 관광 플랜을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떨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팀장 이재온

예.

○홍순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이 지역에 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탐방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동남아를 가면 문화탐방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보다 앞서있는 곳에 갈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워 올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나라도 아마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할 것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하니까 이것을 한번 꼭 짚어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 교통문제, 시외 교통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으니까 시내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중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고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one-way 방식이라든지 개구리주차 방식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전부 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영국 런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개발되어서 우리가 공부해서, 수입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의정팀장 이재운

예.

○홍순헌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 작은 마차길이 오늘날 자동차길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만 하나 없이 따라주는지 그 이유도 한번 교통적인 차원에서 꼭 보고 오셔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적인 차원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 케이블카 때문에 시끄러워지는데, 의회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케이블카를 과연 어느 위치에 무엇 때문에 만들어놓았는지 이것을 한번 꼭 보고 오시라, 이번에 아마 케이블카를 탈 기회가 있을 것이거든요. 해운대 입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입지적 요소로 타당한지 여부를 꼭 한번 보고 오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을 한번...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한번 보고 오시라는 것인데, 도시환경 중에서는 제일 문제가 예를 들면 가로환경입니다. 가로변의 보도 문제라든지, 왜 서양 관광도시에서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몇백 년씩 가는데, 우리는 1년을 못 가는지 그 이유를 물론 알지만 의회 차원에서 되짚어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또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 종류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서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도시 간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들,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을

절대적으로 판가름하는, 외부인이 우리 해운대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을 못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우리 해운대 정도 되면 이런 관점에서 의회가 좀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로환경, 도시환경에 대해서 꼭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재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홍순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질책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서 관광특구로서의 접목도 중요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특히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가서 보고 오지만 방법적으로, ‘HOW’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집행부 직원 두 사람과 같이 연수일정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좋은 방법적인 것을 찾아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특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정란 위원님.

○문정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적질을 받아가지고...

제가 홍순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분이 참 멋있다’ 해서 저분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잠깐 휴대폰을 찾아보았는데요.

(장내웃음)

곤도라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모든 의원님들이 가신다는 뜻은 ‘굉장히 평소에 가고 싶은 데’였다는 것인데요. 해운대도 ‘관광특구 24시 오고 싶은 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선택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

스 이렇게 떠올리면 그저 가고 싶은 곳처럼 해운대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에서 김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고 오실 부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실 것인데요. 저도 아까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수상택시가 있어요. 사실 서울특별시에서는 컨테이너가 아예 다닐 수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트럭도 1톤 이상은 자정 12시~4시 사이에 다녀야 하지 그 이후 시간에는 트럭조차도 불법입니다. 운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아무리 그런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갑니다. 우리처럼 꽉 막혔다 하면 절대로 안 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100층짜리 건물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주를 하실 텐데, 앞으로 해운대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교통 흐름을 원활적으로 해 주셔야만 관광 특구로서의 생명력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늘 고민이 사람들이 오시면 불평을 많이 하세요. 이제 좀 다른 수송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는 수상택시가 있으니깐 한번 활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곤도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스위스 마터호른에 곤도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곤도라 문제가 접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가셔서 좀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은 없고, 딱 드리고 싶은 말이 이번 세 번째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수영구에 사시는데, 이번에 울릉도를 갔다 오셨답니다. 울릉도에 곤도라가 있대요. 곤도라를 타려고 성인 얼마... 예를 들어 만 원이면, 거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수영구 구민에게는 7,000원, 30% 할인이라고 적혀 있더라요. 울릉도에 갔을 때 수영구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3,000원 할인한 것을 가지고 같이 갔던 일행한테 “이야~ 수영구 너네 좋네.” 수영구에 사니까 3,000원 할인도 받고, 그 3,000원이 무슨 300만 원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홍교수님의 말씀대로 해운대구민이라면 이런 이탈리아, 프랑스에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것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이 다녀오

는 곳이에요. 날씨가 언제인가 보니까 9월 23일인가 해서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혹시 여기 보시면 에펠탑도 들어갈 때 매표소, 세느강 유람선 탈 때도 매표소, 루브르 박물관 매표소, 테제베 탈 때도 마찬가지, 산악열차, 밀라노 버스, 수상 버스 탑승 뭐 온갖 군데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와 해운대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할인할 수 있는 어떤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 해운대를 떠올리는 것, 해운대구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영구에서 뭐하는지 나는 세금을 내고도 도저히 몰랐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연말에 수영구청에 공양미 100석은 아니지만 쌀 10가마, 20가마를 보내야 되겠구나, 구청에서 정말 고생하시더라.’ 자기가 이번에는 꼭 실천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의뢰가 가능하시다면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국외연수의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무르익은 모든 어떤 것들이 생활 속에서... 관광만 하러, 보러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가져오는 것 하나를 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고맙습니다.

서울에 트럭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정란 위원

예, 서울특별시에서 관리 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명원

시 조례로 하는 겁니까?

○문정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항상 깨끗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아, 오늘 좋은 정보를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케이블카하고 곤도라하고는 같은 겁니까?

○문정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웃음)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같은...?

○문정란 위원

예,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영구민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 만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문정란 위원

예.

○위원장 이명원

우리 이은경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예,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의장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보시는 것들을 가지고 저녁시간에 서로 토론도 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HOW'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늘 멀리 못 가시고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 지사에서 협찬이 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고, 또 시청이나 시 의회를 방문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게 되어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국외연수를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이 항상 생각하실 부분들이 해운대구민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가실 때부터 돌아왔을 때, 나중에 보고서를 내는 것까지 많

은 부담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구현하는 것보다 아까 문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고, 우리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가 정말 관광특구로서의 관광의 질이 어떠한가, 현주소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관광특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관광특구로서의 정말 독특성을 갖고, 관광특구로서의 면모가 질적으로 좋은 지역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가지고도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용을 깎아주고, 상업용을 깎아주면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누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데도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운대구민들이 겪은 어려움도 한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특구라서 해운대구민이 어쩔 수 없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대란도 문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멀리 있는 유럽과 연계해서 하는 것, 또 울릉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해운대구민들이 관광특구로서 누리는 것들에 비해서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들, 정말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의 질이 요즘에 보니까 해운대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질 좋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이것이 문화와도 잘 접목되어서 관광도시이면서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여기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관광특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여년의 역사로 우리보다 오래된 선진지를 방문하시니까...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의 100년에 대한 우리의 관광의 역사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콘도 자리에 엘...

○위원장 이명원

LCT.

○이은경 위원

예, 거기가 또 들어오고, 요트경기장 앞, 해원초등학교 옆에 또 짓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신세계 쪽으로 안 갑니다. 강변 쪽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 가다가도 빠져나가는데 40분이 걸려서 아예 한독(현, 부산문화여고) 있는 위쪽으로 가거나 빙 둘러서 나가거든요. 정말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케이블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그것이 통영처럼 많은 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케이블카를 타는 것도 아니고, 동백섬과 이기대를 연결한다는 것이 시에서 관피아다... 여러 가지로 아주 문제가 많은데, 교통의 대란은 어떻게 염두에 둘 것인가, 이런 인프라도 생각하면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은 정말 자전거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해운대에도 자전거도로는 만들어놓았지만 군데군데 끊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대안으로써, 어떻게 전통적이고 좁은 도시 안에서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 해운대구도 센텀이라든지, 마린시티라든지 여력이 되는 곳도 있지만 소외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시설탐방이 없더라고요. 시간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부분적으로 정말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데 한두 군데를 가셔서 우리 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들도 찾아보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번에는 많은 협찬을 받으셔서... 또 전원이 다 가시고, 짧지 않은 시간으로 가시는 것인데, 그만큼 갔다 오신 결과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의 말씀처럼 LCT가 들어섬으로써 해운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사실상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이번 연수의 포인트는 관광특구를 자랑하는 우리가 이런 교통지옥을 볼을 보듯 뻔하게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보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욱 위원

제가 체크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이명원

예.

○김정욱 위원

팀장님과 주무님, 이 자료를 오늘 처음 심사위원 여러분들한테 드리신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메일을 드리고, 연락드려서 숙지를 부탁하고, 충분한...

○사무직원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메일이라도 미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예. 이게 되게 중대한 일이고, 내용도 홍위원장님 지적대로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이라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민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그리고 먼저 의장님, 부의장님보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전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신임 의장단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위원님하고 오늘 새로 뽑게 된 세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볼 것이 있는데, 기관 자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여쭙볼게요.

의원 17명이 다 가시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이 아니라 임의적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래서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일정도 풍성하고, 내용 자체도 알차고 의미 있게 짜여야 되겠으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서 나쁜 일로 언론을 타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분들,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직원 분들 한 명이라도 아프다거나 납치를 당한다거나 강도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9월을 예상해서 참여 연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라든가 정치 상황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는 지역이 IS(이슬람국가) 테러를 가장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새 테러가 옛날처럼 정부요인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하드웨어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인 파리나 베니스, 로마 같은 가장 민간인들이 많이 오는 소프트테러라고도 하지요, 'no more terror' 입니다. 무작위한 테러인데, 우리도 이 지역에 연수를 하면서 열흘 동안 있기 때문에 테러에 일단 노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파리를 먼저 가는데, 한불수교 130주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방문기간 중에 테러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좀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영사관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국문화원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밖에 민간, 혹은 관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파리도 마찬가지로, 이 민자들 때문에 강도나 소매치기가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소매치기를 당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충분

히 언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대비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수행 직원 중에서 외국어를... 불어, 이탈리아어를 잘 하시는 분이 같이 가십니까?

○사무직원 김성민

없습니다.

○김정욱 위원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하시는...?

○사무직원 김성민

영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해도 불어라든지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부산시 전체로 쳐도 귀하거든요.

○김정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몇 분 계십니다만 알아보십시오.

○사무직원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다음에는 그런 분들도 동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울릉도에 수영구...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해운대 마르세유’ 혹은 ‘부산 마르세유’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파리와 부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요. 제2의 도시 마르세유와 부산 혹은 해운대가 해양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또 테러진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움 주실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원래 마르세유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르세유 주변에 니스라든지 이런 데에 테러가 많이 나는 바람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와이에 디즈니랜드에 가도 일본사람들은 공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해운대 혹은 부산이... 아주 재미있는 지적이신데, 그런 것을 충분히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파리가든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러면 현지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직원 김성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

그리고 베니스를 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6월부터... 2년에 한 번 비엔날레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도 올해 부산비엔날레를 하게 되어 있는데...

○김재선 위원

베니스비엔날레는 올해가 아니고...

○김정욱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김재선 위원

부산비엔날레는 올해이지만, 베니스비엔날레는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김정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니겠군요.

○김재선 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다. 부산도 2년마다 있듯이...

○김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김정욱 위원

아, 하나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김정욱 위원

단체연수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가시는 우리 직원분들, 건강검진 같은 것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는 동남아 정도의

열대, 아열대지역이 아니라서 덜 하지만, 현지 전염병, 풍토병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을 미리 8월 말 안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홍순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명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헌 위원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잊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숙제를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홍순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역할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연초인가 보니까 현재 구청장님께서 일부 가로변에 테라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 해운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동선이 너무 짧은 것이에요. 특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운대라고 하면 해수욕장하고 구남로 외에는... 그다음에 플러스 달맞이 그다음에 플러스 요즘 얘기하는 마린시티 이 정도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남로 해봐야 전체 연장 140~150m밖에 안 됩니다. 그 140~150m를 얼마나 잘 꾸려야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감동을 하고 느끼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 한쪽에다가 집종을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상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권의 차별성에 따르는 주변 상가 지역과의 격차문제 때문에 여론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중세문화, 현대문화를 복합해서 있지만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실 겁니다. 뭐냐 하면 가로문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길에 그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가로에 커피를

팔 수 있는 자판을 깔아놓았다든지 그런 테라스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오실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도 이제는 서양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보셔서 집행부에서 하기 이전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오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동선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마린시티에서 달맞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동선,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교통축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보도기능이라든지 아까 이은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사람, 또 나는 걸어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 나는 해운대해수욕장 길을 따라서 달맞이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 또 다른 사람 폐선부지를 통해 공원 길을 따라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든지 아니면 마린시티에 뒷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원도심을 지나서 구청 앞을 통과해서 나는 문화를 즐기면서 가보겠다든지 이런 동선을 정리해 보면 아마 새로운 해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번에 꼭 한번 보고 오셔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제가 신문을 꼭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재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첨가하자면요.

○위원장 이명원

예.

○김재선 위원

홍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안 들었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상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도심에 뭐... 첫째는 우리 구민들, 더 크면 시민들, 또 더 크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에 한 번 연수를 가서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리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골목문화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골목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것은 마린시티든 해운대든 큰 도시만 활성화되지, 달맞이라든가 청사포라든가 조그마한 골목들이 있는 구도로의 골목문화가 유럽에는 엄청 예뻐

요. 옛날 중세시대 그 바닥 그대로 조그마한 카페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을...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지요.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이렇다는 것을 기자회견 때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숙제인 것 같고요.

또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부터도 간판을 조그마하게 하고 싶은데, ‘과연 보일까?’ 카페 간판을 조그마하게 해 놓았더니 다 영어로 써 있어서 그게 갤러리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해서... 유럽도 그렇지만 러시아는 더 간판이 안 보여요. 코카콜라 병이 보이면 ‘아~ 음료 파는 곳이구나’, 햄버거 그림이 있으면 ‘레스토랑인가보다’ 이러지만 우리는 너무 간판이 즐비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다 깨우치고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보시다 보면 마인드를 자꾸 옆 사람들에 얘기하면서 인식을 시키면 좀 바뀌지 않겠나, 너무 많은 숙제보다는 가셔서 보고 느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접목도 아까 홍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해운대에 손님들이 너무 질이 떨어져서 고급손님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동남아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제가 뭐 때문인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마이애미에 자주 가는데, 백사장이 고급스럽게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의 축제,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남로에도 다 20대들이거든요. 진짜 돈을 쓸, 파라다이스, 조선비치에 묶는 그런 분들은 안 나오지요. 호텔에서 다 하고, 실제적으로 20대들이 1박 2일 이렇게 즐기러 오는 것인데, 축제로 인해서 너무 그런 것이... 진짜 격상 있게, 해운대비치는 마이애미처럼 고급스럽게 비치에 누워서 선댄을 하는... 그런데 또 상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안 온다, 그런 양면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양면도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기사에 뜨지 않게끔,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일이 있었듯이 안전하게 하셔가지고 기사에 안 나오게... 해운대, 복이 많은 구니까 구의원님들 안전하게 갔다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감사합니다.

홍순헌 위원님의 숙제를 갑자기 받아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우리 김정욱 위원님하고 공동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김정욱 위원님께서 가장 문화적인 소양이 많으신 분이고, 외국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제가 꼭 해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란 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원

말씀하십시오.

○문정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아닙니다.

○문정란 위원

진짜 짧게 끝낼게요. 김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홍순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 ‘고급손님이 안 온다’, 그것에 대해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수영구, 남천동하고는 다릅니다. 광안리 바다하고 해운대 바다 자체가 원래 품격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아주 싸구려 바닷가가 된 이유가 분석을 해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젊은이들이 오면 싸구려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버스커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악사, 이런 예술인들, 버스커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기본적으로 심사를 해서 고정된 위치에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내용으로 버스커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데나 특히 예를 들자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거리의 노래방이예요.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

들이 점유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버스커 관리에 문제가 많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버스커들의 대단한 수준의 공연으로, 지나가면서 정말 걸음이 안 떨어지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잊어지지 않아요. 시커먼 지하철이었는데도... 그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런 높은 수준의 공연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날이 품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표현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품격을 올려야 하지 않나, 축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경동제이드에 사는데,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여름에 왜 그렇게 데시벨을 올려서 바다축제를 하고 계시는지, 원래 그렇게 데시벨을 안 올렸었거든요. 진짜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집에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걸 정도로 데시벨을 올려놓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갑자기 시끌벅적하면서 격이 떨어진 이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벽에 산책하면서 늘 보는 것이, 이 선진 지역에 가시면 도시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름에 쓰레기 악취 때문에 바닷가 거리를 걷는 것이 싫어졌어요. 차라리 길가 도로변을 걸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언제 가도 쓰레기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5시에 가도 그렇고, 6시에 청소를 시작하니까 물로 만날 씻어낸다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환경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으면 해운대는 그길로 끝장입니다. 그걸 정도로 그분들의 노고가 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선진지에도 엄청난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기엔 그런 부분에 문제없이 여전히 품격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가신 김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아닙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심의는 마치 교수님들의 특강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너무 뭐랄까,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HOW'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던져줄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뻑뻑하게 다 적어놓았습니다. 의

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주신 숙제도 하면서 인프라부터... LCT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지옥이 되는 것부터, 바닷가의 품격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책부터 국외연수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까지 진심으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은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성과물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약 한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대단히 내용이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종료)

※ 참고사항

의 석 배 치 도

(2016. 8. 19.)

위원장
이 명 원

사무직원

서 정 학

김 정 욱

홍 순 헌

이 은 경

김 재 선

문 정 란